

가즈아~ 14일 상암벌이 들썩인다

제15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 상암 월드컵공원서 팡파르

4월 하늘의 푸름을 담은 전기인들의 열정이 상암벌을 수놓는 '제15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가 성대한 막을 올린다.

100만 전기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축제이자 범전기계 최대의 행사로 자리매김한 전기사랑마라톤대회가 14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윤규)와 전기신문(사장 이형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10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고, 전기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

해 15돌을 맞은 이번 전기사랑마라톤 대회에는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시공업계, 한전·발전사 등 전력그룹사, 전기 관련 협·단체, 제조기업 등 1만명이 넘는 전기인과 마라톤러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마라톤 코스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프(21.0975km)와 10km, 5km 등 3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장인 평화의 광장을 출발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대교를 왕복하는 하프 구간은 봄의 절정인 4월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10km 구간은 평화의 광장에서 가양

대교를 돌아오는 주루다. 한강과 노을이 어우러진 이 구간은 마라톤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가족·연인·친구와 함께하는 5km 코스는 대회 참석자의 2/3가량이 참가하는 대표 구간이다. 하늘공원을 돌아 내려오는 이 구간에선 걷는 게 달이다. 순위를 매기지 않으니 기록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사랑하는 이들과 사진도 찍고, 답소도 나누며 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평화의 광장 중앙 무대에선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라톤으로 순위 안에 들 자신이 없다면 대회장에서 수시로 열리는 미니 게임에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형편이 어려워 제한승전을 받고 있

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빛 한줄기 모금 행사'도 펼쳐진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전기의 역할처럼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전기인들의 정성을 모은 빛 한줄기 모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올해부터 월·수·금 주 3회 발간하며, 일간지 체제로 전환한 본지가 주력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기신문 페이스북 페이지·인스타그램·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을 친구 추가하거나 팔로우한 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홍보패널에서 가족·연인·친구·동료들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조정훈 기자 jph@



초대의 말 이형주 본지 사장

“올해 15회를 맞은 전기사랑마라톤대회는 우리 전기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울릴 수 있는 진정한 봄 축제로 성장해왔습니다. 매년 4월 우리는 평화의 공원에 모여 전기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고 전기사랑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제 전기사랑 마라톤대회는 축제를 넘어 전기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대한 문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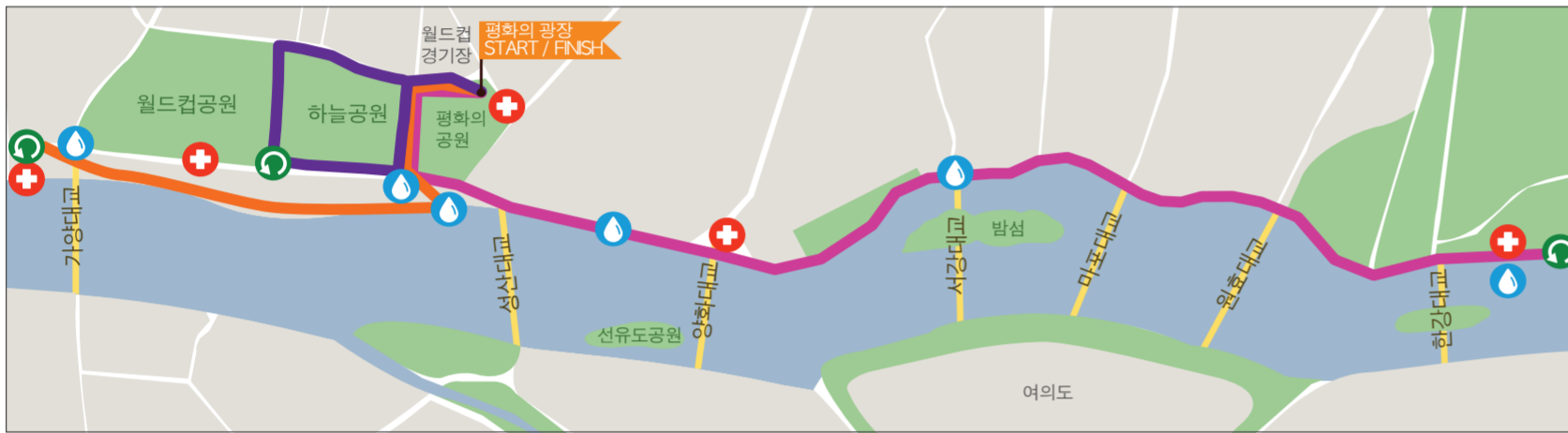
이형주 본지 사장은 “존경하는 전기인 가족 여러분, 올해 전기사랑마라톤대회 슬로건은 ‘에너지 트랜지션, 해피 투모로우(Energy Transition, Happy Tomorrow)’다”며 “에너지전환은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방식에서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메가트렌드”라고 전했다.

“전기사랑마라톤, 거대한 문화로 자리매김 가족·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전기인들은 공통의 목표 의식을 갖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서로 협업해야 합니다. 전기신문도 에너지 전환시대에 우리 전력산업이 다시 한번 원대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 사장은 “전기신문은 올해 창간 54주년을 맞아 지난 1월 1일부터 주 3회 발행, 일간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며 “전기신문은 독자가 세상을 보는 창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심층적인 기획 기사를 통해 전기인의 목소리를 대변해나갈 것이다. 하루를 보는 신문이 아니라 ‘이틀을 보는 신문’으로서 높아져가는 독자들의 기대치를 반드시 충족시킬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기사랑마라톤대회에서 기록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 동료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전기인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대회를 즐기세요’

인증샷, 카톡 플러스 친구 등 이벤트 풍성

전기신문은 올해 일간지 전환을 기점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온라인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범전기계를 대표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인 전기사랑마라톤대회를 맞아 이들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독자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미리 배송된 전기사랑마라톤대회 티셔츠와 배너 사진을 소셜네트워킹에 올리는 인증샷 이벤트

는 대회의 붐업과 기대감을 고조하기 위한 행사다. 배너·티셔츠 사진을 올린 이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대회장에서는 전기신문 페이스북 페이지·인스타그램·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을 친구 추가하거나 팔로우한 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친구추가·팔로우 인증한 이들에게는 기념품이 지급된다.

가족·연인·친구·동료와 함께 전기사랑마라톤대회를 즐기고, 대회 참석 인증샷을 추가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화창한 봄날에 사랑하는 이들과 사진도 남기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의 이벤트다. 선물로 대신할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은 덤이다.

전기사랑마라톤과 같이 뛸시다



조재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사무장

“전기사랑마라톤에 참여하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당 사람들과 함께 모여 마라톤과 같은 체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재호 구로3동 성당 사무장은 처음 도전하는 ‘전기사랑마라톤’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성당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학부모, 교사와 신부님까지 성당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주임 신부님의 권유로 ‘전기사랑마라톤’을 알게 됐고, 학생들도 다함께 마라톤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를 포함한 여러 성당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주임 신부님뿐 아니라 초등부 담당 신부님, 그리고 초등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함양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마라톤이 ‘전기사랑마라톤’인 만큼 어린이들의 에너지 절약과 관리의 습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신앙발전 두 토끼 다 잡을 것”

주일학교 어린이들 건전한 취미생활 함양에도 큰 도움 기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교사, 학부모, 어린이 복사단(미사, 성체성사 등을 거행할 때 집전하는 사제)을 도와 의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이 참가합니다.”

구로3동 성당의 신자들은 이미 국내 마라톤 대회에 여러 번 참여한 바 있다. 운동을 좋아하는 박영주 필립보 신부님을 중심으로 꾸려진 성인 마라톤 동호회도 있다. 이번 전기사랑마라톤대회에는 초등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성당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마라톤에 참여하면서 건강과 신앙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이번 마라톤에서는 어린이들은 5km를, 몇몇 성인들은 하프(21.0975km)코스를 뛴다. 올해 마라톤 대회 참가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이러한 마라톤 대회를 찾을 예정이다.

“한 해에 한두 번씩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올해도 마라톤이 끝나면 부스에서 텐트를 치고 함께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따뜻한 봄을 즐길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가 참가번호 ‘1234’를 받았는데 특별한 숫자를 받은 만큼 마라톤이 더 기대됩니다.” 김예지 기자 kimyj@

우리케이블이

고객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늘도 정직한길을 걸어갑니다.

ACF-90

- 국제 전기안전협회(IEC) 인증
- 국내 전기안전협회 인증
- 전선용 전기안전협회 인증
- 제품 등록번호: 2018-00000000000000

ACFV-90

- 국제 전기안전협회(IEC) 인증
- 국내 전기안전협회 인증
- 전선용 전기안전협회 인증
- 제품 등록번호: 2018-00000000000000

- ✓ **다년간의 전선유통업 노하우로**
- ✓ **각 메이커의 정품 제품을 최저가격으로**
- ✓ **고객의 요구조건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취급대리점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신전선, 한미전선, 한신전선, 동일전선, 상진전선, 상도전기통신, 씨티전기(LED)

취급품목 22.9kV, 6/10kV TFR-CV, FR-CNCO-W, HFIX, HIV, TFR-8, TFR-3 TSP, UTP 등

신규 취급품목 ACF-90, ACFV-90, ACF-3, ACF-CVV, ACF-TSP, ACF-UTP, 가온배관, TFR-AL-CV 가설케이블, 공장용LED, 주택용LED, 상도전기통신(차단기, 배선기구)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

우리케이블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753 TEL 031-529-3669 FAX 031-529-2971~3 E-mail : wooricable@hanmail.net